

사회성 점수 먼저, 학과목 점수 나중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First Lady 였을 때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을 출간하고는 미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성기능을 학과목 공부보다 더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성기능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social norms), 기준(standards), 관습(customs), 또는 전통(traditions)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말하며 사회성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거나 배척하는 행동, 또는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성기능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발달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공부와 병행해서 이러한 기능이 균형 잡힌 발달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또 다른 책임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기능을 다 올바르게 익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최근에 발생한 한국학생들이 연루된 [학교성적표 해킹사건](#)은 학교행동문제로 의뢰되어 오는 학생들을 자주 상담하는 필자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이 학생들은 교사의 패스워드를 도용해 학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서 시험과 과제물의 점수를 조작한것으로 신문은 경찰리포트를 인용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조작한 성적으로 이 학생들은 뭘 하려고 했을까? 우리 한국부모들이 염원하는 명문대학입학을 염두에두고 GPA 를 높이고자 했을까? 아니면 필자에게 상담의뢰되어오는 학생들이 흔히 그런것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이 사건을 읽으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을 돌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다녔던 사회성기능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한국 학부모의 자녀명문대진학에 관한 관심은 새삼 거론이 필요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좋은 성적은 대학진학에 거의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원에도 진학하여서 이 사회의 지도자계층에 들어가는 기회문이 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담에 의뢰되어오는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인식력부족을 들 수 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감당하게 될 결과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게 될 피해에 대한 인식력 결여를 말한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난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어마어마한 자격과 그러한 자격에 지워진 책임에 대하여 자녀에게 인식시키는 일보다는 좋은 대학에 일단 들어가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대학진학 세미나는 발디딜틈이 없고, 대학진학 관련 기사와 정보사이트는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다. 반면에 자녀들에게 정서기능, 사회성기능을 가르치는 부모기술, 자녀교육 세미나에는 빈자리가 항상 더 많다.

교육수준과 자격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대학출신에게 주어지는 자격, 대학원 교육을 받고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자격과 그 자격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 그 책임의 정도를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의대를 마치고 개업을 한다면 환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건강 또는 생명을 맡길 것이고, 의료보험, 메디케어 등에서는 이 의사가 청구하는 진료비를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지불해 준다. 또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었다면 이 사회는 Legal System 을 믿고 맡긴다. 교수가 되면 수백명의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교육제도를 또한 떠 맡긴다. 밤잠을 못이룰 정도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을 우리 사회는 내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말기는 것이다. 대학원은 책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회성기능훈련은 해주지를 않는다.

자녀를 데리고 상담에 오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좋은 직업, 높은 사회적 지위는 선망하지만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교육수준에 걸맞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지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는 한다. 필자는 성적표를 조작한 학생들도 우리 사회가 믿고 말기고 싶어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이라 믿는다. 다만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자신들에게 지우게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수학기공, 화학공식 배우듯이 차근차근 배운 적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힐러리는 이러한 사회성기능이 방정식보다도 “to-부정사”보다도 먼저 익혀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동기능은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고 난 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권한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워지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두려움을 느꼈을 때 힐러리가 목이 쉬도록 강연하고 다녔던 사회행동기능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리차드 손 임상심리학박사

하버드 카운슬링센터 소장

www.harvardcounselors.net